

## 매운 시절을 보내고 난 이의 단단한 향심

이산하는 《한라산》의 시인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한라산》은 제주도 4·3 사건을 민중적 시각에서 형상화한 작품으로 학창시절 《오적》에 감동했던 문학소년이 청년이 되어 쓴 대하사사시다. 공고롭게도 이 작품은 《오적》 이후 최대의 필화사건을 일으킨다. 바로 그 이산하가 소설가로 변신, 장편소설 《양철북》을 들고 나타났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한 스님과 교유했던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쓴 '성장소설'이다.

소설 속에는 두 사람의 수행자가 등장한다. 한 사람은 법운이라는 스님이고 한 사람은 '양철북'이라는 이름의 고등학생이다. 두 사람은 수국사라는 절에서 우연히 만나 전국 사찰 여행길에 동행하게 된다. 이 길 위에서 그들은 선문답 혹은 속설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스며들어간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알을 깨고 자기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이 소설 속의 '여행'은 곧 해탈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동시에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이다. 법운이 열 손가락과 혀에 상처를 내 그 피로

불경을 옮겨 적는 '혈사경血寫經'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적멸의 실체가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깨달은 자가 아프게 이른다.

"네가 스스로 너를 버리지 않는 한 아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양철북'은 그리하여 권터 그라스의 양철북인 동시에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며 또 이산하 자신이다. 이산하는 이 소설을 통해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왜 오스카는 양철북을 두드리는가?' 그는 '북소리'라는 유연한 관념의 힘으로 딱딱하게 굳은 현실의 용벽을 후벼 파낸다. 그 순간 세계의 비밀을 꿰뚫는 혜안이 생기는 것이다. 존재와 세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화해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기본적인 성장소설의 도식을 따르고 있다.

"이 소설의 85퍼센트 정도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소설 속의 법운 스님도 1977년도에 실제로 만나서 함께 여행을 했던 스님이죠.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존재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 소설은 <시운동>에 발표했던 <존재의 놀이>에서부터 시작된 제 문학적 입장의 한 시사가 되는 작품입니다."

빨레 안경 너머 번득이는 눈매에서 범상치 않은 총기聽氣가 엿보이는 작가 이산하는 처음에는 문학에 뜻을 두지 않았다. 문학은 '고상한 교양, 혹은 취미'에 불과했다. 학창시절의 꿈은 영화감독이었다고. 당시만 해도 벽촌이었던 경북 영일에서 태어난 그는 중1



때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생활에 몸과 마음을 맞출 수가 없었다. 내성적이고 영민한 시골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읽는 일이었다.

"중·고등학교 내내 도서관에서 책에만 파묻혀 지냈어요. 스스로를 도서관에 유폐시켰죠. 선생님께 밖에서 자물쇠로 도서관 문을 잠그라고 부탁하고 책을 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부산의 헌책방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때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가스통 비슬라르의 《촛불의 미학》이에요. 물질적 상상력을 가지고 물질과 관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외에도 함석헌, 김지하, 백기완, 리영희 선생의 책을 그 시절에 다 읽었죠."

자신도 모르고 있던 그의 문재文才는 고1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각종 문예공모에 응모하기만 하면 당선 통보가 날아들었던 것. 결국 도서관에서의 문학을 향한 '묵언정진'은 그에게 대학진학의 길까지 열어준다.



“집안 형편 때문에 저는 대학진학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어요. 입시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모대학의 광고를 보니까, 문예공모에 당선되면 대학입학 기회를 주고 장학금까지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 광고가 제 삶에 구원의 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죽자 살자 문학에 매달렸죠.”

그는 별 어려움 없이 문예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자신의 삶의 지향과 문학 적 입장을 동일시했던 그는 대학 입학 후 〈시운동〉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시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주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학생운동이었다. 그는 이른바 운동권이 되어 교지를 만들면서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다. 그의 절친한 문우이자 〈시운동〉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한 시인 이문재는 그 시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이룸(이산하의 또 다른 필명)은 그 무렵 운동권의 핵심이었다. 인간, 사물, 사태의 핵심을 포착하는 데 있어 기민하고 섬세했다. 이룸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모든 국면을 파악하고 장악했다.”

하지만 그가 《한라산》으로 사고(?)를 쳤을 때 이산하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한라산》의 작자라는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는 암전한 시인으로만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 시절 녹두출판사에서 편집과 기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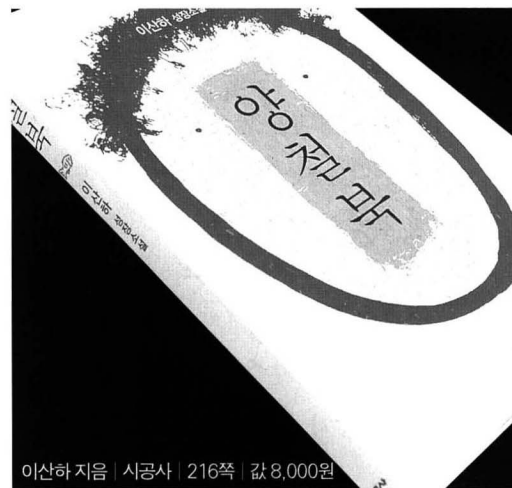
날 우연히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리포트 원고를 보게 되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바로 4·3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당시 녹두출판사 김영호 사장의 제의로 4·3 사건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시를 구상하게 된다. 제주도에 내려가 현지를 꼼꼼하게 답사한 후 1987년 문제의 《한라산》을 〈녹두서평〉에 발표한다. 이산하는 곧 수배되었고 4, 5년의 도피생활 끝에 당국에 붙잡혀 감옥 살이까지 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을 차가운 철창에 가둔 시대에 대해 피해 의식이나 울분 같은 것은 없었을까?

“감옥살이요? 편했어요. 늘 긴장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야 했던 도피 생활이 끝났으니까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마음껏 책을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제겐 참 소중한 겁니다.”

영어圀圀의 시절을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매운 시절을 보내고 난 이의 단단한 항심마저 느껴진다. 그가 길 위에서 쫓겨다닐 때 스스로 외웠던 주문들이 이제 그를 호위하는, 그를 여유롭게 하는 내공으로 쌓였을 것이다.

“요즘 문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의 우리들에 비해 감수성이나 프로 정신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별 고민 없이 쉽게 머리로만 글을 쓰죠.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줄을 써도 혼신의 힘을 다해 썼죠. 깊은 고민과 사유를 통해서 자신이 꼭 수



궁히는, 써야만 하는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최근의 문학에 대한 염려부터 쏟아놓는다. 그 애정 어린 일갈에 ‘이산하’라는 장쾌한 이름으로 《한라산》을 써내려가는 젊은 시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내년쯤 ‘어른이 읽는 동화’를 쓰고 싶고 자신의 체험을 보다 완곡하게 반영한 또 한 편의 성장소설을 써보고 싶다고 밝힌다. 《양철북》의 오스카처럼 성장을 끝낸 그는 여전히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끝을 깎으면 정의로운 창이 되고, 구부리면 받을 일구는 호미가 되고, 구멍을 뚫으면 아름다운 피리가 되는 대나무처럼 몸과 마음에 항상 걸림이 없도록 살피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게 기본이지요.”

그가 완성해 보여줄 적멸의 모습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